

국민의 소리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4월 1주차 동향 (3.3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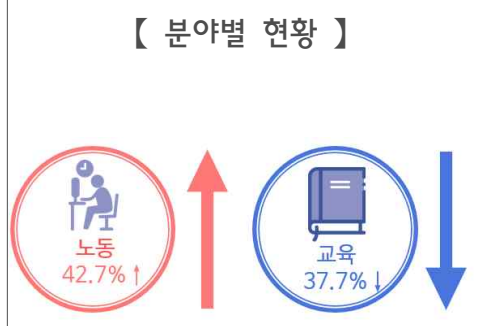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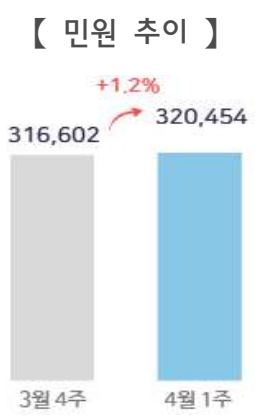
민원 동향

순위	민원 키워드	주요 내용	건수
1	위례삼동선	위례신사선과 연계 요청 / 연계 추진 반대	1,776
2	■■■종합병원	종합병원 신설 절차 이행 촉구	1,678
3	차량기지 이전	이전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사무공간 마련	1,523
4	불법광고물	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1,420
5	@@@역 변전소	변전소 설치 반대	1,198
6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획 재검토 요청	1,105
7	고양은평선	노선 연장 요청	906
8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투기 등 신고	660
9	불법 의료광고	온라인 과대광고 등 신고	645
10	제2경인선	조속착공요구	314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교통단속민원 제외)
 ※ 3월 4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4월 1주차 민원은 320,454건(일평균 45,779건)으로 지난주(316,602건) 대비 1.2% 증가
- 지역별로는 서울(7.2%), 광주(6.7%) 등 증가, 전북(12.3%), 제주(10.8%)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사무공간 마련 요구 등 노동 분야 증가, ★★초 통학구역 유지 요청 등 교육 분야 감소



주요 민원

□ 도심 마라톤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 및 생활 불편 호소 [77건]

- 봄철 마라톤 대회가 빈번하게 개최됨에 따라 시민들의 이동동선 변경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 증가

※ 4~5월 ○○에서만 약 35개 마라톤·러닝 대회 개최 예상 (뉴스1, 4.8.)

- **검토요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경찰청과 어떻게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심 통제를 통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향후 행정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4.5.)
- 주말은 시민들이 일주일의 피로를 풀고,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중대사를 치르며, 누군가에게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치열한 생계의 시간입니다. 현장에서 구급차가 막혀 사이렌만 울리고 있고, 생계를 위해 달리는 배달 노동자들은 도로에 갇혀 절망하며, 평생 한 번뿐인 지인의 결혼식을 놓친 시민들은 핏대를 세우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3.30.)
- 일요일은 쉬는 날이라는 주최 측의 안일한 생각 때문인지, 저처럼 일요일 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생업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시민들은 매번 고립되어 엄청난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우회하고 자차 이동도 불가능하여 매번 지각 위기에 처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주말 아침의 도로 통제는 누군가에게는 취미 생활일지 몰라도, 저 같은 사람에게는 생존권과 통행권의 박탈입니다. (4.5.)
- 한 달에 무려 19건의 마라톤 대회를 도심 한복판에서 허가해 놓고 시민들은 주말 휴일의 꿀 같은 휴식 시간과 중요한 개인 일정을 망치고 있으며, 배달 및 운수업 종사자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관련 민원이 4년 새 10배나 폭증했다는 기사까지 나오는데, 특정 단체의 행사를 위해 다수의 시민이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3.30.)

▣ (참고) 도심 마라톤 증가에 따른 생활 불편 호소 관련 언론보도

봄철 마라톤 도심 마라톤 급증... 시민 "권한 없는데 민원만 늘어" 한숨

이비송 기자
2026.04.08 오후 02:24

'정부 후원' 마라톤 대회 개최 추세...경찰 교통 통제 불가피
'도시, 대회 승인-허가 권한 없어...'관계 기관 협의 강화'



뉴스1(26.4.8.)

도심 마라톤 이달에만 20개...주말마다 '분통'

인력 2026.04.05, 오후 7:36



연합뉴스TV(26.4.5.)

도심 마라톤 증가에 따른 생활 불편 호소 관련 언론보도

인대환 기자 인력 2026-04-05 09:11



문화일보(26.4.5.)

□ ■■ 차량기지 이전 관련 대책 요구 [1523건]

○ ■■ 차량기지의 ■■ 이전에 따른 채용·인력 배치, 사무공간 마련 요청

- 오는 6월 말 기지 이전이 예정되어 있으나, 신규채용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6월말 안에 채용절차 거치고 교육시키고 배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약 3개월간 100여 명의 기술 인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어 시민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4.3.)
- 부지 매각 및 이전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토지보상비에도 불구하고, ■■에 잔류하는 전기·신호·통신·궤도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거처 마련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철거 먼지와 소음 등 폐허에 가까운 환경에 직원을 방치하는 것은 직원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4.2.)

□ 위례삼동선, 위례신사선 연계 관련 민원 [1776건]

○ 위례삼동선과 위례신사선 연계를 통한 ♠♠ 접근성 개선 요구가 있는 반면, 기존 위례신사선 계획 대비 노선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도 함께 제기

- 현재 ♣♣신도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함께 교통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심각하여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직결 운행이 이루어질 경우 환승에 따른 시간 손실과 혼잡이 줄어들어 이용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위례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포함한 광역 교통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1.)
- ♣♣신도시 주민들은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해 교통분담금을 부담하고 약 17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사업 추진을 기다려 왔습니다. 위례신사선의 연장선 형태로 위례삼동선이 추진될 경우, 기존 노선의 혼잡도 증가 및 서비스 질 저하가 불가피하며 이는 ♣♣신도시 주민들의 정당한 교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는 위례신사선이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독립 노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추가 노선 직결 또는 차량기지 공동 사용과 같은 방식으로 기존 노선의 수송 여력을 희생시키는 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3.30.)

알림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 중 증가 추세이거나 관계 기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민권익위에서는 관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이후 조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도심 마라톤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 및 생활 불편 호소	1AA-2603-1247404	서울특별시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검색하고 분석이 가능한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민원업무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분석시스템을 기관별 민원분석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